

근로자의 행복, 바로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제43호 자랑스런 안전인 동아제약(주) 구자원 과장

20년 동안 한길을 걸어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보람과 만족이 없이 그 길을 걷는다면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는 말한다 나로 인해 회사 전 근로자가 행복해 질 수 있다면 그것 만큼 보람있고 값진 일이 있겠느냐고 숨이 막히도록 더운 35도를 넘는 날씨, 그 기온 만큼 안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동아제약(주) 구자원과장과 만나기 위해 대구로 향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동아제약(주)달성공장은 1984년에 설립하여 주력 제품인 박카스-D를 생산하고 있다. 구자원 과장은 설립과 동시에 전기기사로 입사하여 이듬해인 1985년에 안전관리자로 첫 발을 내딛는다. 처음에는 부족한 안전지식으로 어려움과 책임감으로 부담도 되었지만 안전업무가 나와 함께 하는 직장동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에 보람으로 오늘까지 한길을 걸어왔다. 지난 20년동안 동료들

의 인성을 유지해온 구자원 과장은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의 초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감독자 직급에 해당하는 과·팀장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매년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 근로자들에게 교육 내용을 전파토록 함으로써 관리감독자들이 안전보건 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이 거론되기 훨씬 이전인 90년대 중반부터 작업의 성력화(省力化)를 위해 포장라인과 공병투입라인을 자동화하는 등 안전 분야에 있어서 앞서가는 발상으로 오래전부터 근로자를 근골격계질환으로부터 보호해왔다. 이러한 사례는 안전인으로서 근로자의 인성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의 적극적인 면모를 볼 수

다른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있다.

이러한 구자원 과장의 손길은 현장의 유해환경 개선과 지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각종 안전활동,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향상,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 운동에서 만날 수 있고, 결국 무재해 3배수(1,200일)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공적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2005년 산재예방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받기도 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해하는 구자원 과장의 진한 미소에서 부드럽지만 확고한 안전에 대한 의지가 감지된다. 20년 전 구자원 과장이 입사하면서 심은 나무가 어느덧 넓을 그늘을 드리워 근로자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여기서 앞으로도 구자원 과장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의 그늘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임재근 기자〉